

처음 소방서에 발령받았을 때, 나를 담당하던 선배는 여자였다. 아무것도 모르던 당시의 나는 소방관이라 하면 무의식적으로 건장한 남성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다. 선배는 장비 점검부터 화재 진압 시 초기 대응법, 환자를 문진하는 법이나 출동이 끝나고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었다. 특히 현장에서 무작정 힘을 쓰기보다, 동료와 호흡을 맞추며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강조했다. 선배는 급할수록 손보다 눈을 먼저 움직이라 했고, 나는 선배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방관의 일이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처음 마주했다. 환자 주변에는 피가 번졌고 비명과 사람들의 소리가 뒤엉켰다. 배운 순서를 떠올렸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망설여졌다. 선배는 환자의 상태와 출혈 부위를 확인한 뒤, 지혈과 응급처치를 이어 갔고 대원들의 역할을 짚고 분명하게 지시했다. 피가 흥건한 현장에서도 목소리와 움직임은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 많은 피 앞에서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 선배는 웃으며 답했다.

“여자는 피에 익숙하잖아.”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대답이 어찌나 멋있던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약점처럼 여기지 않고, 강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선배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지우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계로 여기지도 않았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신고로 출동한 현장. 좁은 방 안에서 산모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보호자는 주변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야 머릿속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처음 보는 출산 상황에 판단이 흐려졌다. 내가 잘못 손을 대서 산모와 아기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커졌다. 선배는 침착하게 산모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이미 진통 간격이 짧아졌고,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무리한 이송보다 현장에서 아기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산모분. 잘하고 있어요. 숨 천천히 쉬세요. 저희가 옆에 있으니깐 안심하세요.”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일정해졌다. 선배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더 준비하도록 했다. 방 안의 모두가 선배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선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숙련된 소방관이었고, 출산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여자이자 엄마였다. 그 경험이 전문성을 대신할 수야 없지만, 구급대원의 전문성에 경험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따스함을 더했다.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늘 침착해요?”

출동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선배에게 물었다.

“소방관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강하거든요.”

소방관으로서 쌓아 온 실력에 대한 자신감과 여성과 엄마로서 살아온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선배는 여자임에도 유능한 소방관이 아니라, 숙련된 소방관이면서 동시에 여자였다. 여성이라는 사실은 소방관으로서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고, 특정 현장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을 헤아리고 안심시키는 강점이 되기도 했다.

나 또한 남자는 힘쓰는 일을, 여자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배는 행동으로 내 선입견을 무너뜨렸다. 힘이 필요한 현장에서도 망설이지 않았고, 섬세함이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발휘했다.

우리 소방서에는 여성 소방서장님과 여성 구급대장님이 계신다. 서장이란 자리는 재난 현장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구급대장이란 자리는 다수의 환자 앞에서 대원들의 판단과 움직임을 이끌어

야 한다. 두 분의 지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는 대원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러니 소방관에게 지휘관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순간에 내려진 지시에 자신의 등을 맡긴다는 뜻이리라. 현장 대원은 출동으로 증명된 경험과 판단을 믿고 움직인다. 우리 또한 서장님과 구급대장님이 현장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긴박한 순간에도 주저 없이 지시를 따른다. 지휘관의 성별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소방서에 성별은 없다. 남녀가 아닌, 능력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야 위험한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동료들에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생긴다.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은 대원의 성별을 가려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자 소방관이란 없다.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소방관이 있을 뿐이다.